



강북구의회
GANGBUK DISTRICT COUNCIL

의정활동 보도

2015년 9월 21일
(월요일)

강북신문 5면



김동식 의장이 임시회 본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심 위원장은 “위원님들과 함께 충실하고 면밀한 예산안 심의를 통해 좋은 결과가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으며, 이정식 부위원장은 “추경 예산안은 긴급하고 시급하게 집행이 필요한 부분도 포함된 만큼 최선을 다해 심사하겠다”고 밝혔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의 심사를 거쳐 올라온 2015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의 일반회계 4,439억 7,233만원과 특별회계 140억 9,560만원 등 총 4,580억 6,793만원의 예산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면밀히 심사했다.

이영심 예결위원장은 16일 열린 2차 본회의 추경예산안 심사결과보고를 통해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해 노력한 예결위원들과 관계 공무원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했다.

제2차 본회의에서는 2015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 수정안을 가결 처리했으며, 이어진 이정식 의원의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 관련 소회’의 신상발언을 끝으로 제192회 임시회는 막을 내렸다.

강북구의회 제192회 임시회서 추경예산 확정

이영심 예결위원장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면밀히 심사”

강북구의회(의장 김동식)는 9월16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지난 9월14일부터 16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개최된 제192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하고 폐회했다.

제192회 임시회에서는 9월 14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2015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했다.

14일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새롭게 이영심 위원장과 이정식 부위원장은 선출했는데 이영

서울포스트 4면

강북구의회 제192회 임시회서 추경예산안 확정

이영심 예결위원장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면밀히 심사”



김동식 강북구의회 의장이 제192회 임시회를 폐회하고 있다.

강북구의회(의장 김동식)는 9월16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지난 9월14일부터 16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개최된 제192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하고 폐회했다.

제192회 임시회에서는 9월 14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2015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했다.

14일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새롭게 이영심 위원장과 이정식 부위원장은 선출했는데 이영심 위

원장은 “위원들과 함께 충실하고 면밀한 예산안 심의를 통해 좋은 결과가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으며, 이정식 부위원장은 “추경 예산안은 긴급하고 시급하게 집행이 필요한 부분도 포함된 만큼 최선을 다해 심사하겠다”고 밝혔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의 심사를 거쳐 올라온 2015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의 일반회계 4,439억 7,233만원과 특별회

계 140억 9,560만원 등 총 4,580억 6,793만원의 예산안에 대해 심사했다.

이영심 예결위원장은 16일 열린 2차 본회의 추경예산안 심사결과보고를 통해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해 노력한 예결위원들과 관계 공무원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했다.

제2차 본회의에서는 2015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 수정안을 가결 처리했으며, 이어진 이정식 의원의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 관련 소회’의 신상발언을 끝으로 제192회 임시회는 막을 내렸다.

강북구의회, 제1회 추경안 본회의 통과

빨래골 자투리땅 공원 조성 사업 비 5,000만 원 삭감 돼

의원들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하며 추경예산안 부결을 불렀던 수유1동 빨래골 도로개설 잔여지 자투리땅 조성(공원 조성)사업 예산 1억 원이 5000만 원 삭감되며 강북구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강북구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추경안 부결로 14일 긴급 소집된 강북구의회는 제19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재구성하고, 위원장으로 이영심 의원을, 부위원장에 이정식 의원을 각각 선임했다.

이영심, 이백균, 이정식, 이용균, 김명숙 의원 등 5명의 예결위원들은 15일부터 16일까지 2015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진행했다.

심사 결과 빨래골 공원 조성 사업 예산은 3,000만 원 삭감됐던 지난 회기 예결위 안에서 5,000만 원 삭감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삭감된 2,000만 원의 예산은 사무관리비 중 효율적인 공원관리를 위해 근린공원유지관리비로 2천만 원 증액했다.

강북구는 줄어든 5,000만 원 예산을 고려해 줄어 든 예산범위 내에서 공원조성 예산을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빨래골 공원 조성에 반대 의견을 냈던 이백균 의원은 “인근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고 생각해 반대 의견을 냈다”면서 “90m거리에 삼지마당에 운동시설과 벤치, 정자가 설치되어 있어 이 땅에 같은 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예산 낭비라고 생각했다”며 “주차시설이 부족한 것을 고려해 거주자우선 주차구역으로 활용하면 더 좋겠다고 판단했다”며 지난 회기 당시 반대 이유를 설명했다.

이영심 위원장은 “위원들과 함께 충실히 면밀한 예산안 심의를 통해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심사했다”며 심사 과정을 설명했다.

이정식 부위원장은 “추경 예산안은 긴급하고 시급하게 집행이 필요한 부

분도 포함된 만큼 최선을 다해 심사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편성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일반·특별회계 모두 합해서 219억 9,604만원이 증액된 4,580억 6,793만원으로 일반회계가 211억 3,375만원 증액된 4천 439억 7,233만원이고 특별회계는 8억 6,229만원 증액된 140억 9,560만원.

이영심 위원장은 “최근 어려운 경제 여건을 감안해 소모성 경비 및 시급성이 낮은 사업 등에 대한 지출을 최소화하고, 효과적인 재원배분으로 구민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 및 행정의 효율성 확보하고자 했다”며 심사 배경을 설명하며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해 노력한 예결위원들과 관계 공무원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했다.



강북구의회, 192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추경안 심사 마무리



강북구의회(의장 김동식)는 지난 14일 제19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15년도 제1회 서울시 강북구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이어진 1차 예산결산위원회 심의에서 위원장에 이영심 의원이, 부위원장에 이정식 의원이 각각 선임됐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이영심, 이백균, 이정식, 이용균, 김명숙 의원으로 총 5명의 의원이 9월 15일부터~16일까지 2015년 제1회 서울시 강북구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진행했다.

이영심 위원장은 “위원님들과 함께 충실히 면밀한 예산안 심의를 통해 좋은 결과가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으며, 이정식 부위원장은 “추경 예산안은 긴급하고 시급하게 집행이 필요한 부분도 포함된 만큼 최선을 다해 심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집행부가 이번 임시회에서 제출한 제1회 추경예산예산안 총규모는 일반회계 4천 439억 7천 233만원이며, 특별회계 140억 9천 561만원이다.

이는 당초 예산 대비 5.04%인 219억 9천 605만원 증가한 수치이며, 각 상임위와 예결위의 심사를 거친 수정안이 지난 16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돼 확정 됐다.